

국제 물 관리 분야의 거인, 2014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수상

(스톡홀름 2014년 3월 21일 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존 브리스코 (John Briscoe) 교수가 2014 스톡홀름워터 프라이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발표는 브리스코 교수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지칠 줄 모르는 집념을 바탕으로 국제 및 지역 차원의 물 관리에 기여한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존 브리스코 교수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하버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수상 소식을 접한 브리스코 교수는 “놀라운 한편 영광”이라면서 “이 상으로 인해 생각하는 실무자들이 인정받게 돼 기쁘다. 나 역시 그들 중 한 명”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 위원회는 선정 이유로 존 브리스코 교수가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비롯해, 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정책 실행 및 실천을 결합했다”고 밝혔다.

오늘날 전 세계는 중대한 물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인류의 물 안보와 생물다양성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가뭄과 홍수는 치명적인 재해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한 영역에서만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 브리스코 교수는 과학, 정책 및 실천을 접목시킴으로써 전 세계의 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수 있는지에 대해 천재적인 통찰력을 보였다.

브리스코교수는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나는 수년 동안 미시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활동한 덕분에 효과적인 정책 입안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브리스코 교수는 1970년대 방글라데시에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기반시설이 어떻게 빈곤층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했다. 모잠비크에서는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해야지만 믿을 만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브리스코교수의 최고 성과 중 하나는 세계은행을 위해 마련한 2003 물 전략이다. 2003 물 전략은 더 나은 기반시설과 개선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새롭고 창의적이며 지속적인 기준을 제시했고, 물 분야 이외 다양한 다른 분야에까지 시사점을 제공했다.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의 후원자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는 스톡홀름 국제 물 주간 (World Water Week in Stockholm) 기간 중 9월 4일에 열리는 왕립시상식에서 2012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를 공식 수여할 예정이다.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는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가 매년 수여하는 국제적인 상으로서, 수상자는 미화 150,000달러의 상금과 특별히 디자인된 수정 조각 상패를 받는다.

배포 자료 전문, 사진 및 영상은 웹사이트 <http://www.siwi.org/SWP2014>를 참조한다.

출처: 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 (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